

중금당(中金堂)

2018 년에 재건된 중금당은 고후쿠지 절의 가장 새로운 건물인 동시에, 가람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금당’은 불상을 안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가리킵니다. 불상은 보통 금박으로 덮혀 있기 때문에 공양된 촛불이나 등명의 빛을 반사하여 건물이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이는 지혜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힌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나타냅니다.

과거 고후쿠지 절에는 3 개의 금당이 존재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길고 가장 중요한 건물이 바로 이 중금당이었습니다. 중금당이라는 이름은 가람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동금당(東金堂)과 서금당(西金堂: 현존하지 않음) 사이에 세워져 있다는 점에서 붙여졌습니다. 최초의 중금당은 710 년부터 714 년에 걸쳐 고후쿠지 절의 창건자인 후지와라노 후히토(659~720 년)의 명으로 건립되었는데, 그 당시 사당 내부에는 석가모니상과 2 구의 협시보살상, 2 구의 십일면관음상, 사천왕상 등이 안치되어 있었고 이 외에 미래의 부처인 미륵의 정토를 재현한 한 쌍의 도상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중금당은 일곱 차례의 화재를 겪었습니다. 일곱 번째 화재로부터 100 년 이상이 지난 1819 년에 나라의 마을 사람들이 금품을 기부해 비로소 작은 임시 금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이미 1970 년대에 노후화가 심화되어 결국, 2000 년에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철거된 터에는 나라 시대(710~794 년)에 세워질 당시의 치수와 건축 양식을 충실히 재현한 건물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이 새로운 중금당은 3 세기 이상이 지나고서야 본격적으로 재건된 것으로 2018 년 10 월에 엄숙한 낙성법요를 거쳐 현재는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사당 내부에는 1811 년에 만들어진 석가여래상과 가마쿠라 시대(1185~1333 년)의 약왕·약상보살상, 대흑천상, 사천왕상, 남북조 시대(1336~1392 년)의 길상천상 등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중금당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법상주’로,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가 전체적으로 법상종 개창자들의 커다란 초상화로 덮혀 있습니다.